



과거 식품 선택의 기준은 ‘맛과 가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공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당류·나트륨·단백질 함량 등 성분표부터 살핀다. ‘건강’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취향이나 프리미엄 옵션이 아니라, 식품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라면과 과자, 음료와 간편식까지 건강을 전제로 설계되도록 만들며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에 맞춰 기업의 전략과 대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건강 챙기는 대한민국 식품 저·저 흐름 확산

〈저당·저칼로리〉

건강을 파는 시대

〈上〉맛·가격 보다 성분표

한국 사회에서 식품은 이제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됐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일상화, 자기 관리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등장 속에서 건강한 식품이 각광받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 가운데 21.21%를 차지했다. 이미 202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 과제가 됐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인구 21% ‘초고령사회’ 고혈압·당뇨 등 전국민 일상과제

20대의 절반은 식품 성분표 확인 ‘저당 간식’ 메가 트렌드 자리잡아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소비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처럼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좌우되 기보다 성분과 원재료, 실제 효능을 따지는 ‘정보 기반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의 약 90%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 성분, 효능, 후기 등을 사전에 검색·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격보다는 성분 함량과 과학적 근거, 브랜드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젊은 세대에서도 확인된다. 단기적인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양성분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20대에서 96%를 넘어섰다. 성분표를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해 건강 관리가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통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치로 알 수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저당·저칼로리·제로 슈거 제품군 매출은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S25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주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15% 이상 증가했고 저당·제로 슈거 간식 매출은 20% 넘게 늘었다. 샐러드, 단백질 바, 구운란, 닭가슴살, 단백질 음료 등 이른바 ‘관리형 식품’ 전반이 동반 성장했다.

저당 간식은 이미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의 ‘저당 팝콘 시리즈’는 출시 직후 월 매출 30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과거 허니버터칩 신드롬과 비교될 만큼 이례적인 성과로 ‘건강을 고려한 간식도 충분히 대중적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분석이다.

저당·저칼로리 간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로 편의점’과 무인 헬스푸드 매장도 대학가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가맹 사업 개시 수개월 만에 두 자릿수 점포 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유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처에 따르면 저당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99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식품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맛있는가’보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구매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피 10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코스피가 전 거래일(4723.10)보다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42.18)보다 8.98포인트(0.95%) 오른 951.16,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7.5원)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정체성’ 당락 갈랐다… LG AI연구원 1위

과기부, K-AI 국가대표 1차 평가 총 5개 단체 중 네이버·NC ‘탈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AI’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회비가 엇갈린 결과를 내놔다. LG AI연구원이 전 항목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기술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프롬프트 스크래치’로 대표되는 독자성과 AI 주권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했는지가 생존을 가른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했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네이버,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등 5개 컨소시엄에

대한 1차 평가를 종료하고 탈락 대상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진행한 이번 심사는 벤치마크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합산해 이루어졌다.

이번 심사는 LG AI연구원의 압승이다. LG는 벤치마크(33.6점), 전문가 평가(31.6점), 사용자 평가(25점 만점)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2차 단계 진출권을 따냈다. 참여한 5개 모델 모두 미국 ‘에포크 AI(Epoch AI)’의 ‘주목할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등 기술적 성과는 입증됐으나, 정작 탈락의 칼날은 기술력이 아닌 ‘정체성’에서 휘둘러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했다. 네이버는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기술을 앞세워 점수 상으로는 상위 4개 팀에 포함됐으나, 심사위원회는 네이버의 모델이 프로젝트의 근간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공모 당시부터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파인튜닝)한 파생형이 아닌, 가중치 초기화부터 사전 학습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모델만을 인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 평가단은 네이버가 제출한 테크니컬 리포트와 훈련 로그를 분석한 끝에 독자적 구현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5연속 2.50% ‘동결’

한은, 수도권 집값 등 리스크 여전 호조·부진 맞물린 ‘K자형 회복’ 유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성장 개선세와 물가 안정 흐름을 확인하면서도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현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

이 일치했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8%)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면서도, 반도체 경기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보기술(IT) 호조와 비IT 부진이 맞물린 ‘K자형 회복’이 이어지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0%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각각 2.1%, 2.0% 전망에 대체

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높아진 환율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외환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였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의총서 “한동훈 제명 철회해야” “지금은 내 탓 할 때”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 만나 방산협력 논의

▲與 ‘검찰개혁’ 의원총회 개최…정청래 “기소는 검사, 수사는 경찰에게”

▲이준석,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 전용 특수부 만들어”

▲‘김병기 수사무마 의혹’ 관계자 줄소환…前동작서 팀장·보좌진 조사

▲與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각계 전문가 초청

여한구 “쿠팡 조사, 한미 외교·통상 현안 확대해석 부적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디지털입법 동향 등 입장 설명
쿠팡 관련 객관적인 조사 강조
“美 기업 불리한 대우 없을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쿠팡 사안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문제일 뿐, 양국 외교·통상 현안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연방의회와 업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 취지와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우리의 국내 디지털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 등을 청취했다. /산업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앤디 킴 상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

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에서도 쿠팡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그리어 대표에게)쿠팡 이슈의 본질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협의를 이룬 한국이 여

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반도체 관세 조정과,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 동향 점검을 위해 방미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인증제도 대거 정비… 2800억 절감 기대

국표원, 인증제도 정비방안 마련
유사 제도 간 통합 등 합리화 초점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 67개를 대거 정비한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인증은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인증제도 수는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로 늘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인증 도입으로 3주기에는 246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3주기 첫해인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폐지 23개(29.1%) ▲통합 1개(1.3%) ▲개선 43개(54.4%) ▲존속 12개(15.2%)로 정비한다. 폐지 대상 23개 가운데 12개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5개는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6개는 지정·허가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된다.

대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관련 법 내 유사 제도와 통합이 권고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인증 방식 대신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유사 제도 간 통합도 추진된다.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제’에 흡수·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존속이 필요한 43개 제도는 운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된다. 이 중 21개는 타 인증 결과 인정, 소요 기간 단축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하고, 13개는 미흡한 규정 정비와 파생 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을 합리화한다. 나머지 9개는 인증 정보 공개 확대와 최신화 등 정보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

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유효기간 확대와 소요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인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반면자동차·자동차부품자기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국민 안전이나 국제 협약 이행과 직결되는 12개 제도는 필수 인증으로 판단해 존속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 정비에 따라 인증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시험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적자 90조 달해

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 적자 기록

지난해 나라살림을 적자가 11월까지 누계 기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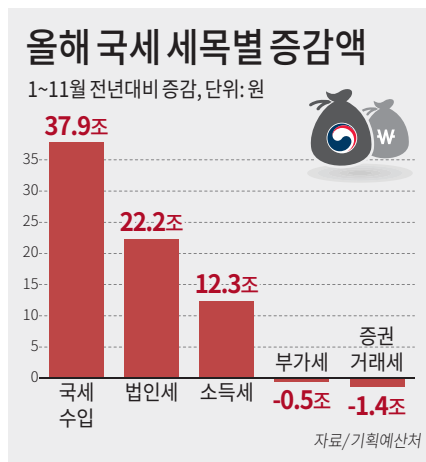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운용을 보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 37조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1개팀 추가 공모… 네이버·NC 등 재기회

>> 1만 ‘정체성 당락…’서 계속

이는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논란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로 풀이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최소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으로도 외산 모델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끊고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프로젝트 취지상, 네이버의 방식은 국가 기밀 유출 방지가 운영 통제권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함께 탈락한 NC AI는 제조와 국방 등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I 전략을 선보였으나 점수 경쟁에서 밀려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독자성 논란과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개 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포함해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다시 기회를 열어주어 2026년 상반기까지 4개 정예팀 체제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SNS를 통해 “이번 평가 결과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재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발족

국정원·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 협력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발족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잡·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져 자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

으로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이른바 환치기), 가격조작, 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비수기 공식 됐다’… AI·전장 수요 힘입어 고부가 전략 성과

삼성전기·LG이노텍

4분기 실적 ‘두 자릿수 성장’ 전망

제품믹스 개선에 수익성 방어 강화
산업·모빌리티 비중늘려 체질 전환
로봇·SDV 등 신사업 확장 가속

삼성전기와LG이노텍이 4·4분기의 전
통적 비수기 공식에서 벗어나 성장 흐름
을 지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
공지능(AI)·전장 수요 증가가 실적을 뒷
받침하고, 양사의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
업 전환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를 2조8336억원, 영업이익 2245억원으로
제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7% 늘고
영업이익은 95.2% 증가한 수치다. LG이노
텍의 같은기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7조
6010억원, 영업이익 3642억원으로 집계
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이 각각 14.7%, 46.9%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기는 지난해부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2005억원,
2분기 2130억원, 3분기 2603억원으로 분
기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러
한 배경에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전경.

/LG이노텍

사업에서 IT용 대신 고부가 제품인 산
업·전장·AI 서버 공급을 확대하며 안정
적인 수익원을 창출한 점이 꼽힌다.

LG이노텍은 1분기 영업이익 1251억원,
2분기 114억원, 3분기 2037억원을 기록하
며 분기별로 변동 폭이 컸다. 2분기에는
비우호적 환율과 미국 정부의 관세 불확
실성에 따른 전분기 선구매 수요 등이 실
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다만 3분기 들어
제품 수요 확대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17 시
리즈의 수요 호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실적 반등세에 힘입어 4분기
에도 양사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 업계에 4분기는 통
상 비수기로 불리지만 원·달러 환율 상
승과 AI, 전장 등 고부가사업 전환이 실
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사는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기존 사업 포
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신사업 분야 확장
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기는 피
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확
장하고 있다. MLCC,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주력 기술을 기반

으로 로봇·AI용 핵심 부품 공급을 늘리
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과 카메라 모듈, MLCC, 기
판, FC-BGA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
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미
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사업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차량
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모듈 생
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AP모듈은
자동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
품으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보급

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LG이노텍은 관련 제품의 생산 역
량을 확대해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업계 전반에서 제
품 믹스 개선과 AI 수요 확대가 이어지
면서 FC-BGA를 비롯한 고부가부품 비
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
세대 AI 가속기 출시 로드맵에 따라 관
련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車수출 720억달러 ‘역대 최대’ 친환경·하이브리드 성장 견인

산업부, ‘2025년·12월 車산업 동향’
대외 불확실성에도 3년 연속 선방
북미 감소, EU·아시아 두 자릿수 ↑
중고차 88.7억달러 ‘사상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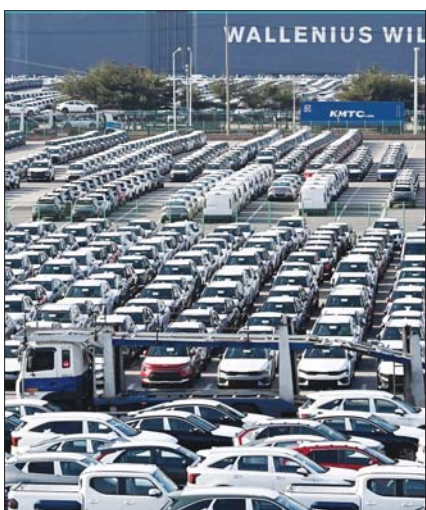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미
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속
에서도 3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도는 성과
를 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성과
를 견인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48억달러
로 30%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
다. 중고차 수출 역시 88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
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1992대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3년 연속
400만대 생산을 유지했다. 내수 판매
는 168만110대로 3.3% 늘어난 반면,
수출 물량은 173만6308대로 1.7% 감
소했다.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9억9100만달
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가운
데 친환경차 수출액은 257억6700만달러
로 11.0% 늘었고, 자동차부품 수출은
212억300만달러로 5.9% 감소했다.

차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6만1678대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
다. 전기차는 26만1974대로 0.3% 줄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만729대로
5.4%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가 357억700만
달러로 10.8% 감소했고, 이 중 미국은
301억5400만달러로 13.2%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6억7800만달러로
20.1% 증가했으며, 기타 유럽(62억6100
만달러·30.5%), 아시아(77억5400만달
러·31.9%)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
록했다. 중동은 53억700만달러
(2.8%), 중남미는 30억6900만달러
(9.9%), 오세아니아는 36억4900만달러
(0.6%), 아프리카는 4억7400만달러
(18.4%)로 집계됐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자동차 184만
6274대, 기아 159만7340대, 한국지엠 46
만826대, KG모빌리티 10만6137대, 르노
코리아8만4185대, 타타대우 7230대 순으
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썰매타러 영양가자!



영양 공공겨울축제 마스코트 풍순이, 풍식이

제3회

영양공공겨울축제

2026. 1. 9.(금) ~ 1. 25.(일)
영양읍 현리 빙상장

얼음낚시터 운영

– 공공 언 얼음속에서 팔딱거리는 빙어를 잡아올리는 짜릿함.
기다림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빙상장 운영

–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반변천에 자연이 만든 천연 빙상장에서
한겨울 추위를 날려 보내요. 물론 스케이트는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얼음썰매 타기

– 스케이트는 아직인 어린이들은 안전한 썰매를 타세요. 아빠가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립니다.

얼음열차 운행

– 칙칙폭폭 신나게 달리는 얼음열차로 추위를 날려 버립니다.

눈썰매장 운영

– 인공으로 조성된 대형 눈썰매장에서 스릴도 느껴보고,
겨울바람과 맞서 보세요. 더 없이 좋은 추억이 됩니다.

스릴만점 회전눈썰매

– 빙빙 회전하는 기구를 이용해 눈썰매를 탑니다. 재미 백배입니다.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영양군체육회
YEONGYANG SPORTS COUNCIL

한은, 기준금리 전원일치 동결

“성장세 회복 지원하며 물가·금융안정 등 면밀 점검할 것”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금통위원 5명 “3개월 뒤에도 유지”
반도체 경기·환율 상방 리스크 있어
원·달러 환율, 수도권 주택 오름세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 보고 판단

“소수 의견은 없었다.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있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가운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겹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는 ‘금융안정 점검’이 전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 동결 ‘전원일치’…3개월 전망 동결 5대 1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동결 우위’로 기울었다.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공동취재단

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머지 1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인하·동결 전망이 3대 3으로 갈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시장의 인하 속도 기대를 다시 한번 눌러둔 셈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개선 흐름이다.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봤다.

◆ 환율·부동산 ‘금융안정’에 무게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가장 오래 붙든 키워드는 ‘금융안정’이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물가 지표는 당장 ‘인하 신호’로 읽히기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은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소폭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로 전월과 같다고 밝혔다. 물가가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높아

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금리로 직접 겨냥’하는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환율 레벨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환율이 물가·기대·분배에 미치는 파급을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5bp(1bp=0.01%포인트)로는 안 되고 200bp, 300bp를 올려야 하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도 ‘완화 속도’에 제약을 주는 변수로 꼽혔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 1.8% 상승했고 10~11월에도 1.2~0.8%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K온, 실리콘 음극 전고체 배터리 성능저하 문제 개선

연세대 연구팀과 신소재 바인더 개발
전기차 적용 가정 조건서 구동 성공

SK온이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실리콘 음극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지목돼 온 성능 저하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나갔다.

SK온은 15일 연세대학교 정운석·김정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실리콘 음극에 최적화된 신소재 바인더 ‘전자전도성 고분자(PPMA)’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PPMA는 전도성과 접착력을 동시에 갖춘 소재로, 충·방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리콘 음극의 팽창·수축 환경에서도 입자 간 접촉과 전자 이동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



cations)’에 지난해 12월 5일 게재됐다. 심사위원들은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에서는 활용이 제한됐던 전자전도성 고분자 바인더를 전고체 배터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SK온은 신소재 바인더를 적용한 실리콘 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에 가까운 압력 조건에서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실 수준의 소형 셀을 넘어 실제 전기차 적용을 가정한 고에너지밀도 파우치형 배터리로 성능을 검증했으며 수백 회에 걸친 충·방전 시험 이후에도 초기 용량과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음극은 이론적으로 흑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저장 용량을 지닌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나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300% 이상 팽창·수축하면서 입자 간 접촉이 끊기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문제가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극 입자 간 접촉을 통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구조로, 접촉이 끊길 경우 성능 회복이 쉽지 않다. 기존에는 바인더 사용량을 늘리거나 높은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활용됐지만 널리 사용된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VDF) 바인더는 절연성이 강해 사용량이 늘수록 전극 성능 저하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SK온과 연세대 연구진은 저압 환경에서 나타나는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리튬이온 전달이 아니라 전극 내부 전자 이동에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발한 PPMA는 전극 전반에 연속적인 전자 이동 통로를 형성하는 동시에 실리콘 입자 간 결합력을 강화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정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기존 방식은 특수 용매와 고압 공정이 필요했으나, PPMA는 물 기반 공정이 가능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용 압력도 기존 대비 80% 이상 낮췄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사진)은 “산학 협력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원편희 기자 wkh@

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社 적발

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우양통상 등 14곳 경고 처분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종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회장 구속’ 면한 MBK파트너스, 이번엔 금감원 중징계 칼날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제재안 조율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를 맞은 MBK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제재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금융 상황을 위해 RCP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펀드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등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자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LP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만약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가 확

정될 경우 MBK는 신규 펀드 조성이나 위탁 운용사 선정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 1위 사모펀드로서의 평판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어진 보강 필요성을 들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보강 수사와 재판 공방 등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3000억원의 긴급 자금 수혈과 적자 점포 폐점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MBK파트너스 임종 제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손종욱 기자

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자금줄이 마른 홈플러스는 14일 화성동탄점 등 7개 점포의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1월 직원 급여 지급마저 불투명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 2차 특검 강행… 국힘, 필리버스터·무기한 단식 ‘맞불’

민주, ‘2차 특검’ 본회의의 처리 나서
필버 첫주자로 개혁신당 원내대표
野, 與 입법독재 비판 규탄대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는 민주당 비위 의혹을 겨냥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본회의의 상정 안건을 조율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미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써가며 수사를 마쳤는데도 특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최대 170일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 촉구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안의 수사 기간 동안 검사 30명, 검사와 공무원 70명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 집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의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선거개입 의혹

▲김건희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 의혹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부당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해 두 보수정당이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제출하고 토론 24시간이 경과한 16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마치고 여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며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맘에 와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특검법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실용외교’ 李 “中日외교, 협력 지평 넓혀”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재
“국민 체감 국정실현에 역량 집중”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단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국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상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

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주도 복지 시범사업인 ‘그냥드림(떡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일제로 언급하며 “지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 비행정청장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모하메드 대통령 초청, 성과 만들자”

칼둔 UAE 행정청장 만나
방위산업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협의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민 방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해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100년 해 관계로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실질적인 발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 한국을 국민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조만간 한국을 국민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UAE는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이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할 걸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형제이자 친구로 UAE로 맞이했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하게 부탁하셨다”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서예진 기자

韓 재심 생각 없다는데… 張 “소명 기회”

제명 여부 두고 국힘 의원 갑론을박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계시관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진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H 현대해상

**고혈압, 당뇨, 디스크가 있어도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간편 가입 가능!**

| AI 자동심사 프로세스 |

📌 치료이력 📌 입원이력 📌 수술이력 📌 진단이력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인수 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걱정 덜어주는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 심사 및 의사의 건강 검진에 따라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6970호(2025.12.22~2026.12.21)

연간 20% 집값상승 1번지… 한강 변 ‘잠실’ 수요 쏠린다

신축 대단지 갈아타기 수요 유입

서울 송파구가 ‘집값 상승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지역임에도 잠실 일대 신축·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외지인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유입되며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42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잠실 르엘’ 역시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이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 76~82㎡ 매물이 40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까지 송파구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누적 20.92%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20%대 상승률이다. 거래도 집중됐다. 10·15 대책 이후 지난 9일까지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1066건을 기록해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582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14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해 이삿짐 차량과 입주 청소 차량이 단지 안팎을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신축 프리미엄에 더해 입지 여건이 탄탄한 곳이다. 올림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8호선 몽촌토성역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

잠실 래미안 84㎡ 42.5억 거래
10·15 대책 후 송파 아파트 거래
1066건 기록… 서울시 1위 차지
“고연봉자 많아 대출 영향은 적고
연령대 관계없이 신축 선호 흐름”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9호선 한성백제역도 걸어서 갈 수 있다. 2호선 잠실나루역과 잠실역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신축 단지답게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됐다. 단지 안내지도에는 어린이 승차차장과 시니어클럽, 작은 도서관, 야외 음악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명이 빼곡히 적혀 있다. 물이 흐르는 정원형 조경과 지하 공간을 낮게 파 자연광을 끌어들이 ‘썬큰(sunken)’

구조도 눈에 띈다. 실내 휴식 공간인 ‘파크 오아시스’는 가구에서 나무 향기가 날 정도로 갖 조성된 모습이었다.

반포나 압구정으로 갈아타는 선택이 예전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강 변 잠실의 신축 대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 강남3구 집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의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송파구 신천동 일대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매물을 문의하는 전화벨 소리와 입주 상담을 위해 사무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신천동의 S공인중개업소에서는 “잠실 래미안 같은 신축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었다”며 “송파에서 송파로 이동하기도 하고, 개포나 대치 등 강남권에 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과거 이 일대에 거주했던 이들이 다시 돌아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가 한창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오는 흐름도 감지된다.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좋아서 다시 송파로 이사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영향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고연봉 거주자가 많아 최근에는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란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잠실역 사거리 동쪽에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심의 판도 또한 바뀌고 있다. 엘·리·트가 준공 20년이 다 되어 신축 이미지가 퇴색된 상황에서 엘·리·트 이후 잠실에 처음 생긴 대단지이기 때문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와 잠실 르엘(1865가구), 기존 잠실장미(3522가

구)와 파크리오(6864가구)를 더하면 동 잠실에 1만49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거 벨트가 조성된다.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동쪽은 서쪽 엘·리·트 단지에 비해 학군 등이 약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찾는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신축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하다”고 말했다.

신축 쏠림은 재건축 기대와도 맞물린다. 그는 “신축 공급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퍼진 것 같은데, 재건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주공5단지 거래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잠실 엘스에 남을지, 잠실 장미로 옮길지’를 두고 고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축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구축 단지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준공 18년 차인 잠실 엘스는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확충과 함께 리모델링·대수선 검토에 들어갔다. 조식 서비스나 호텔식 수영장 대신 입주인 이용률이 높은 실용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지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입지를 지키면서 신축에 준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잠실 MI CE 개발과 삼성동 GBC 조성 등 주변 대형 개발 호재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트럼프·연준 충돌… 韓 환율상승 등 우려

美 연준 독립성 훼손 현실화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 변동성 상승
국내 주식·채권 자금 이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채권 운용사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월가 주요 투자은행은 미 증시의 단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 산하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은 연준의 워싱턴 본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

◆ 수사 배경에 깔린 금리 인하 요구

관련 의혹은 파월 의장 재임 중 연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약 3조 6860억 원)가 쓰였다는 내용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6월 상원 청문회에서 비용 증가 배경에 대해 “1930년대 건립 이후 첫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유해 물질 제거 등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AP·뉴시스

통령이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비용 적절성을 문제 삼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연준 본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핵심 메시지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역시 통화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파월 의장은 뉴욕타임스가 수사 착수 사실을 보도한 뒤 2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형사 기소 위험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해 온 연준의 판단에 대한 결과”라며 “이는 연준이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 한국 금융시장 영향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 등 한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PIMCO), PGIM, DW S그룹 등 대형 채권 운용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금리를 낮추려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신뢰도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장기 국제 금리가 오히려 상승(채권값 하락)할 수 있다.

미국 장기 국제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국제 금리 상승은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을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키우고,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국제채가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만큼, 금리 메리트가 커질수록 신흥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국제 금리 역시 미국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아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 전반을 끌어올려 자금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 폭도 제한될 수 있다”며 “한도 한·미 금리차 확대와 환율 불안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금리 1.0% ‘연금 생활비 대출’

5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방식

하나은행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 1.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하여 공과금, 병원

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이호성 행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손님들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ESG경영과 포용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작년 서울 아파트값 9% ↑… 19년 만에 최대

연립·단독주택 포함시 7% 상승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9% 가까이 뛰면서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98%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의 23.46% 이후 가장 높다.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8.03%)과 2021년(8.02%)을 웃돈다.

아파트와 연립·단독 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7.07%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9.56% 이후 가장 높다. 매매가격지수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5.26%, 3.23% 올랐다.

작년 12월 월간으로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부동산대책 이후 폭은 다소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45%), 성동구(1.27%) 등이, 강남은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동관 “선박 동력체계 전환해야”

〈한화그룹 부회장〉

글로벌 해운산업 탈탄소화 이끈다

다보스포럼 앞두고 기고문 게재
ESS 등 청정에너지 솔루션 결합
“넷제로 도달, 공공·민간 협력 필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결합해 해운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56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포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탄소 배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선박 탄소포집 등 과도기적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박 동력체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해운 산업이 중대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국제해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24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세션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에서 한화의 해양 탈탄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한화그룹

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027년 이후에는 해운사들이 배출하는 탄소 전량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이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운 산업 탈탄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점단 ESS 및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해양 인프라 전반에 적용해 선박과 항만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항만 당국과 협력해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ESS와 선박 충전 설비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선도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넷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 변화에는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 요소”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아우디코리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韓 시장 중요… A6 등 핵심모델 대거 투입”

네트워크 재정비 등 고객경험 강화

“올해 아우디코리아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핵심 모델 투입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2026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은 아우디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고객 접점에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는 올해 네트워크 재정비와 고객 경험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전개한다. 전국 전시장에 새로운 리테일 기준인 PSC(Progressive Showroom Concep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센터와 배터리 전문 거점인 BCC를 확대해 전동화 시대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아우디 오픈 하우스’를 운영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올해 핵심 모델로는 아우디를 대표하는 A6과 Q3가 전면에 나선다. 신형 A6는 PPC 플랫폼 기반의 MHEV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라이팅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진보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3세대 Q3는 디자인과 주행 성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으며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총 16종의 신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 코리아 사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2026년 비전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하며 브랜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전년 대비 판매는 18.2% 성장했고, 전기차 판매는 26.6% 증가했다.

내연기관 모델인 A5와 Q5는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Q6 e-트론과 A6 e-트론은 차세대 전동화 기술과 디지털 경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Q4 e-트론은 지난해 3011대가 판매되며 2년 연속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아우디코리아는 서수원과 제주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주요 권역에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하거나 확장했다. 현재 국내 모든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다. 고전압 배터리 전문 인력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5+2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해 장기 보유 고객의 신뢰를 강화했다.

/원관희 기자

LS, 자회사 IPO·해외 공장증설 등 밸류업 박차

이달 에식스솔루션즈 2차 기업설명회
LS전선, 멕시코 버스덕트 설비 확충

LS는 15일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일반 공모 청약과 더불어 (주)LS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주식배정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조가 도입되면 (주)LS 주주들은 높은 경쟁률의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성장이 예상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투자 성과를 모회사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LS 관계자는 “그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자회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LS와 에식스솔루션즈 모두의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가 상장하더라도 IPO 일반 공모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 기회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였지



LSCMX 조감도.

/LS전선

만, LS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모회사 주주가 IPO 예정 자회사의 지분 취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LS는 이달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고 해당 청약방식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정책과 밸류업 전략 등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LS전선은 이날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생산법인 LSCMX에 약 2300억원을 투입해 전력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부품 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덕트 설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생산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확충 수요에 최적화한 공급 체계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동차용 전선 생산 라인을 신규 구축해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내연기관용부터 전기차(EV)용 고전압 전선까지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춰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현지화 요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LG,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 재정비

고윤주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선임

LG가 글로벌전략개발원장에 고윤주 LG화학 CSSO(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 전무·사진)를 선임하며 그룹의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했다. LG글로벌전략개발원은 LG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경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자문 기관으로 2023년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설립됐다.

15일 LG에 따르면 고 선임 원장은 30여 년간 외교 일선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미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ESG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북미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외무고시 2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미국1등서기관, 주뉴욕영사, 북미국심의관 등을 미국 외교가를 두루 거쳤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뒤 2021년 주미국대사관 차석 겸 정부공사를 맡아 대미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차세대 데시칸트 건조기 연구

美 에너지부 공식 지원과제 선정

삼성전자의 차세대 의류 건조 기술 연구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공식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강력한 건조 성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의류 건조기 개발을 위한 ‘열회수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데시칸트 건조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미국 최대 국립 연구소인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ORNL)’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화학공학과와 협업한다.

이 과제는 고효율 제습 소재인 ‘데시칸트’를 의류 건조기에 적용해 건조 성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조 시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을 ‘벤

트형(Vent, 열풍배기식 건조) 건조기’ 대비 35% 수준까지 절감하면서도 동등 수준의 건조 성능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삼성전자와 오크리지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향후 2년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20만달러를 지원받고, 120만달러를 추가 분담해 총 240만달러의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건조 솔루션 연구 결과를 향후 건조기 및 일체형 세탁건조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티앤씨 ‘리젠’ 환경표지 인증

효성티앤씨는 자사 재활용 폴리에스터 리젠이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경표지 인증은 주텍

과 건설용 자재 및 설비 분야 제품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리젠의 인증 획득은 단순히 친환경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 ‘자원순환성 향상’과 ‘유해물질 저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성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인증으로 리젠은 별도의 환경성 검증 절차 없이도 공식적인 친환경 원료 제품으로 인정받아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도 포함된다.

/김민술 인턴 기자 mnskim@

中企·소상공인 규제 79건 개선… ‘현장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부·中企 옴부즈만 합동 추진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확정
창업·신산업 21건 등 불편 완화
고질규제 28건·숨은규제 30건 정비
韓 “제감 애로 상당부분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79건을 적극 개선한다. 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 현실화(기후부)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 허용(산업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법무부) ▲조달 사전심사 부적격자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조달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형태 유연화(식약처) 등 범부처 규제가 골고루 포함됐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합동)’을 확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고 밝혔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은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

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선정, 개선기로 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근로자

5000명당 1명 선임해야 한다. 반면 ‘판매업’은 500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이동시에는 판매업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실내 설치 스피커 제조업체 T사는 제품 설치를 위해 실내 배선작업 등의 전기공사가 필요해 전기공사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입주에 애로를 먹고 있었다. 그동안 공장 부대시설에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로 인해 전문 건설업 사무실과 같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사업 사무실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1000→1500원)보다 수취기업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2000원)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애로 목소리도 높아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활성화

‘제3자 부당개입 해결 TF’ 2차 회의
신고자 면책제 도입, 포상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1월 중 도입·시행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노용석 중소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우선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

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한다. 신고인에게는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중기부 소속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4개 기관 외에 기정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3곳 신규 모집

소진공, 선정대학 최대 2.5억 지원
로컬창업 현장훈련 공간 거점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에 새로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접수와 평가를 거쳐 3개 대학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로컬창업 현장훈련 공간으로 거점화해 차별화된 로컬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 ▲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현장실습, 창업 동아리 운영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지역가치 창업 전문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포함한 전공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대학으로, 소진공은 선정 대학이 제출한 서류와 사업계획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규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5000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 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설 맞이 ‘모바일 10% 할인’

적립금 이벤트·신규 웰컴쿠폰 지급

공영홈쇼핑이 설을 맞아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1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월11일까지 ‘할인이 왔단 말이야’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상품을 모바일로 주문하면 10%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과, 배, 굴비 등 제수용 먹거리는 물론 명절 선물용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16일부터 2월11일까지 ‘적립이 왔단 말이야’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방송 상품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누적 주문 금액 20만원 이상 달성 고객에게는 적립금 7000원을 지급한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달성 시 1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3월10일



공영홈쇼핑 설특집 이벤트.

지급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1월 한 달간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반갑단 말이야’ 이벤트도 펼친다. 공영홈쇼핑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최근 3달간 구매 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中企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중기중앙회-기후부

‘기후·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재생에너지 지원확대·규제개선 건의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후부와 제40차 중

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오기용 상근부회장과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중별 현장 상황·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김민석 국무총리, 판교 넥슨 방문

“K-게임, 규제 대상 아닌 미래산업”

정부차원 지원방향 모색 의지 반영
김 총리, 넥슨 경영진과 간담회
이용자 편의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해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게임 산업의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대현·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넥슨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소개와 최근 게임 산업 동향을 보고받고, K-게임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 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 게임 효과음 제작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며, 게임 산업을 향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청취했다. 청년들은 창의적인 개발 환경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며 “넥슨 임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K-게임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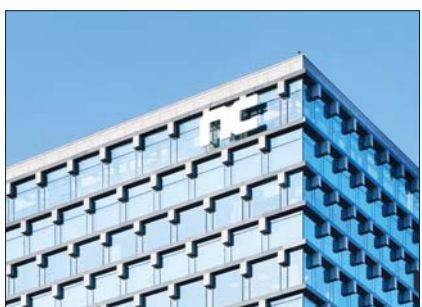
엔씨소프트, 국내게임사 2곳에 투자 단행

디나미스 원·텍사스튜디오에 투자
서브컬처·MMORPG 신규 IP 확보
글로벌 퍼블리싱, 개발 클러스터 속도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확장과 신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내 게임 개발사 두 곳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서브컬처와 MMORPG 장르를 각각 겨냥해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외부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역량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는 서브컬처 전문 개발사 디나미스 원과 MMORPG 전문 개발사 텍사스튜디오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장르별 대표 성공작의 핵심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2024년 설립됐으며, 검증된 개발 히스토리와 실행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두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규 IP의 판권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엔씨소프트

을 확보하고,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과 국내의 개발 클러스터 확충에 속도를 높인다. 자체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외부 우수 개발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장르별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디나미스 원은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AT 가칭’을 자체 개발 중이다. 마법과 행정을 핵심 테마로 한 신전기 서브컬처 RPG로, 기존 프로젝트 중단 이후 새롭게 착수한 작품이다. 엔씨소프트는

프로젝트 AT의 국내외 퍼블리싱을 맡아 서브컬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관련 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텍사스튜디오는 고품질 그래픽과 액션성을 앞세운 신규 IP ‘프로젝트 R 가칭’을 개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장기간 축적한 MMORPG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R의 국내외 퍼블리싱을 담당한다. 텍사스튜디오의 개발력과 엔씨 MMO 사업 조직의 운영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이번 투자는 우수한 개발 히스토리와 실행력을 입증한 외부 개발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퍼블리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르별 개발 클러스터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GS리테일, 카카오 기반 AI 검색·추천 도입

비용 절감과 실험 사례 확대 성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GS리테일이 카카오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효소핑 GS샵과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등 주요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GS샵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부터 모델 운영, 품질 모니터링까지 AI·머신러닝 운영 환경을 갖추고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GS리테일은 2024년부터 카카오클라우드의 GPU 인스턴스와 쿠브플로우(Kubeflow)를 활용해 검색 및 추천 시

스템과 분석 환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적용해 의미 기반 검색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검색 및 추천 모델 학습 관련 비용을 월평균 약 35% 절감했고, 모델 실험 사례 수는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PU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대비 더 많은 실험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KT ‘지니 TV’, AI 일상대화 플랫폼으로

지니TV AI 에이전트 이용 키워드 분석
인사·감정표현 등 상호작용 확대

KT가 지니TV AI 에이전트 이용 키워드 데이터 분석 결과, TV가 단순한 콘텐츠 시청 기기를 넘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7월 지니TV AI 에이전트가 도입된 이후, 지원 셋톱박스가 20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기존에는 “TV 켜줘”, “채널 바꿔줘” 등 단순 명령 위주였던 음성 인식 이용 방식이 AI 에이전트 도입 이후 일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억(LTM) 기반 상호작용 데이터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엄마’, ‘아빠’, ‘사랑’ 등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용자들이 AI를 정보 도구를 넘어 비교적 친숙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연인·일상 관련 키워드가 많았고, 30~40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단어가 두드러졌다. 50대 이후부터는 취미와 건강 관련 키워드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관심사도 계절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화했다. 7월에는 에어컨, 8월에는 프로야구와 넷플릭스 콘텐츠, 9월에는 드라마와 스포츠 인물, 10월에는 축구, 11월에는 배구와 드라마, 12월에는 지상파·케이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드라마와 스포츠 등 미디어 관련 단어가 지속적으로 상위어 오른 점도 확인됐



모델들이 지니 TV AI 에이전트로 TV를 통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KT

다. AI 에이전트가 단순 검색을 넘어 콘텐츠 맥락을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니TV AI 에이전트 이용 시간대는 오전 8시와 오후 7시에 집중됐으며, 하루 평균 발화 횟수는 3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굿모닝”, “잘자”,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나 감정 표현도 다수 확인돼, 이용 방식이 기능 호출 중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일부 확장된 모습이다.

그동안 모바일 AI 서비스 이용이 적었던 고령층과 키즈 세대의 이용 증가도 나타났다. 스마트폰 조작이나 텍스트 입력 없이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TV 환경이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은 생활 정보와 건강 관련 대화 비중이 높았고, 키즈 이용자들은 AI를 정보 검색보다는 놀이와 대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놀이·참여형 키워드와 또래 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지니TV AI 에이전트는 현재 주요 지니TV 셋톱박스와 올인원 사운드바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회사는 측은 연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지와 오디오 정보를 함께 인식하는 멀티모달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 아동·청소년 쇼츠 이용시간 관리

쇼츠 시청 전면 제한도 가능

15일 유튜브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 기능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 이용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쇼츠 시청 시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청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쇼츠 시청 시간 관리 기능이다. 부모는 자녀 계정의 쇼츠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업계 최초로 쇼츠 피드 타이머를 '0'으로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상황에 따라 쇼츠 시청을 전면 제한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청소년 디지털 웰빙 기능을 기반으로 취침 시간과 휴식 시간 알람도 맞춤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용 고품질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의 ‘아동 및 가족 자문 위원회’와 UCLA 산하 ‘연구자 및 스토리텔러 센터’가 협력해 개발했다. 미국심리학회, 보스턴 아동병원 디지털 웰니스 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글로벌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청소년에게 적합한 고품질 콘텐츠와 지양해야 할 저품질 콘텐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유튜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추천 시스템에도 적용한다. 탐구 정신과 영감을 증진하는 콘텐츠, 관심사와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일상 속 요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과 긍정적 행동을 기르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정 설정 환경도 개선된다. 부모는 자녀용 신규 계정을 직접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계정 전환을 간소화해 감독 하에 자녀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지원한다.

유튜브는 지난 10여년간 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리 기능 제공, 엄격한 정책과 안전장치 구축, 18세 미만 보호 계정 운영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다.

제니퍼 플레너리 오크너 유튜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문 부사장은 “아이들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가스 그레이엄 유튜브 건강 및 공중보건 총괄 박사는 “가족과 함께 성장하며 차세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美 재무장관 이례적 구두개입… 원화 약세 제동 걸릴까

올해 외국인 3조4934억 순매수
채권 가격 상승·환차익 노린 듯
재무장관, 원화 가치 하락 우려

외국인의 채권 매수와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에 대한 이례적 구두 개입이 추락하는 원화 가치를 방어해 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은 장외채권시장에서 3조4934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47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작년 국제 121조1000억원(2024년 74조9000억원), 통안채 19조3000억원(2024년 16조5000억원) 등 채권을 전년 대비 72조2000억 원 더 많이 샀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338조3000억원으로 전년(2024년 말 268조2000억원) 대비 70조1000억원(26.1%)이 증가했다.



이중욱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장 한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 금리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지는데,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자 채권을 저렴하게 사려는 외국인의 투자가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날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493%로 지난해 12월 말 3.385%, 지난해 1월 초 2.749%보다 큰 폭 상승했다. 이날도 한국은행이 연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0.075%p 올랐다.

원화 가치 하락도 외국인을 채권시장으로 불러 모은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연평균으로 사상 첫 1400원대 기록

으로, 외환위기(1395원)와 글로벌 금융 위기(1276원)를 모두 넘어선다. 원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좁아져 따라 채권시장에 꾸준히 돈이 몰리고 있다”며 “지난해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달러를 들고 와서 채권을 사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시장에서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사는 것은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비록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망하지 않을 확률, 안전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역대급 채권 매수와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에 대한 이례적 구두 개입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스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이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어서 한국 외환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정부의 추가 시장 개입 경계감을 높여 줄 것으로 보여 가파른 원화 약세 흐름이 일단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복합자산 ‘데이터센터’, 뉴이코노미 주인공” 토큰증권 도입… 다양한 사업 증권화

인터뷰 진형석 삼성KPMG 전무

‘통신사 설비’서 ‘투자자산’으로 인식
에너지·산업 변화도 고려하는 자산

“데이터센터는 한 가지로 규정하기보다,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디지털산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복합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진형석 삼성KPMG 전무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 “이걸 누가 사지?”…신세계I&C 매각이 던진 첫 질문

2018년 무렵 신세계I&C가 보유하던 구로 사옥 매각은 전형적인 업무시설 거래처럼 보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달랐다. 건물 일부가 이미 데이터센터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피스로만 보기도, 순수 데이터센터 자산으로 정의하기도 애매했다.

매각 자문을 맡았던 삼성KPMG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다. “이걸 누가 사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진형석 삼성KPMG 전무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삼성KPMG

당시 시장에서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보다는, 운영 경험을 갖춘 사업자의 영역에 더 가까운 자산으로 인식됐다. 이런 시장 인식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던 인물이 진 전무였다. 그는 오랜 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자문을 담당하며 시장의 신뢰를 받아온 실무형 베테랑으로 평가된다.

◆ 데이터센터 개발, 구조를 설계하는 종합 자문 필수

데이터센터는 오피스 등 전통 자산 대비 초기 투자비(CAPEX)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금융기관

의 투자 심사가 까다롭다. 전력 수급, 인허가, 민원, 사전 임차인(프리리스) 확보 여부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된다. 그만큼 데이터센터는 과거처럼 입지와 임대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와 IT 산업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유치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온 디지털 인프라이자, 상업용 부동산의 뉴이코노미 섹터로 평가된다. 다만 RE100,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ESG 기준 강화, 분산 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 정책 환경 변화와 AI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투자 판단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 전문 자문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섹터다.

진 전무는 ““삼성KPMG는 데이터센터를 부동산·인프라·회계·세무를 아우르는 자산으로 보고, 구조 설계부터 엑시트까지 연결하는 윈스톱 자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No.1 자문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인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한다. 기존보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보호 세무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허정윤 기자

‘한화 인적분할’에 목표주가 상승

불확실성 해소에 그룹주 재평가

한화의 인적분할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주가치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29.78% 오른 2105원에 마감했다. 한화시스템(9.41%), 한화

(6.23%), 한화오션(4.86%) 등도 4~9% 상승했다.

흥국증권은 한화에 대해 인적분할로 인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 4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BNK투자증권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

동안 개연성은 있었지만 시점을 알 수 없어 주가 부담 요인이 됐던 지배구조 이슈가 이번 결정으로 정리됐다”며 “사업군별 독립 경영 체제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적분할과 동시에 제시된 주주환원 정책도 재평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는 자사주 445만주(발행 주식의 5.9%)를 즉시 소각하고, 올해 최소 주당배당금(DPS) 1000원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주목

삼성운용, 올해 개인 순매수 1883억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1883억원으로 전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

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하루동안 486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연초 이후 전체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5위를 기록했다. 이 ETF는 지난 2024년 12월 상장 후 약 13개월 만에 누적 개인 순매수 1조5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순자산은 2조2685억원에 이른다. /신하은 기자

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기후에너지부, 살균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 실시

미승인 물질·제품 단계적 퇴출
AI 기반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
전자기기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기 위해 '제조·유통·사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해·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아울

러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해 제조 단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

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은 20% 이상 단축한다.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 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33.3억弗… 역대 최대

해양수산부 전년대비 수출 9.7% ↑
조미김 중심 참치·굴 등 증가 추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어 ▲참치(5.4억 달러) ▲고등어(2억 달러) ▲오징어(1.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빨고기와 넙치, 게살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4%, 9.

0%, 7.5%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 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또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해 씨포츠 프로젝트(스포츠 경기시 오프라인 홍보)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앞줄 오른쪽 6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병원에서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삶의 질 높인다

송미령 장관, 여성농업인 간담회
“공동경영주 등록 등 정책 지속 보완”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전북 익산 소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장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또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정책 개선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종전에는 농외 취업 제한으로 인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여성농업인들도 참석해 정책 변화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직접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Project 상생’ 성과공유

119레오 사례 등 이목집중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Project 상생' 사업이 해외판로 개척과 지역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Project 상생'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와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5' 최종 우승기업인 케이알지그룹과,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119레오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공부문 일자리, 1년 만에 증가 전환

데이터처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0.1% (약 1000개) 늘어난 287만5000개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감소는 면했으나, 증가율이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 대비로 2019년 6.1%, 2020년 6.3%, 2021년 2.6%, 2022년 1.4%,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 중이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로 전년 대비 0.2% (4000개) 늘었는데, 이 중 지방정부 일자리가 152만7000개로 0.5% (8000개)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일자리는 88만9000개로 0.5% (5000개) 줄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로 0.6% (3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비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6만9000개로 0.8% (1만2000개) 줄었고, 여성 일자리는 140만6000개로 1.0% (1만3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9000개·1.9%), 50대(1만4000개·1.4%), 60세 이상(7000개·0.7%)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2만9000개·-2.9%)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0대(-9000개·-0.9%)에서도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하나로유통, '설 특판 전략회의' 개최

임영선 대표 등 100여명 참석

농협하나로유통이 '2026년 사업추진 및 설 특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이 전략회의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은 전사적인 사업추진 결의를 다졌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을 기점으로 얼어붙은 유통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회의에는 임영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국 사무소장 및 본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오는 2월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2월2일부터 16일까지 본격적인 설 특판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선물세트(▲농협다움 과일혼합 ▲한우 명품)와 농협 특별 선물세트(▲농협목우촌 ▲농협홍삼 ▲농협양곡) 등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하나로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국가장학금Ⅱ 폐지 여파… 서울 사립대 등록금 인상 ‘급물살’

사총협-전총협 면담 ‘평행선’
등록금 법정 한도 3.19%에 촉각
고려대·서강대 등 인상안 논의
학생단체 “동결 유지” 반발 확산
교육부 “일괄 동결 한계” 신중론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Ⅱ 유형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총협

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주택공급 막는 규제 걷는다”

정부에 맞춤형 제도개선 9건 건의
전세사기 여파에 공급 침체 대응
비아파트 활성화 등 혁신 추진

서울시가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 통합을”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

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수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수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수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 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숯통을 띄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

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 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전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협약

산업·경제·문화·관광·교육 교류 확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14일(현지시간) 다낭 시청에서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오른쪽)을 만나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용인특례시 대표단을 초청해 환영 오찬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던 쩡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14일(현지시간) 다낭 시청에서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오른쪽)을 만나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다낭시 주요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김경수 “지역 성장동력, 대학·인재가 중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호서대 아산캠퍼스서 특별강연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중심에 대학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돼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15일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초청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정책

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청년,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할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호서대 학생들을 비롯해 동문 가족기업 CEO, 지자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 거점 대학’으로서의 호서대 비전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특강 이후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당 LAB은 충남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 시설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대형 재난에도 민방위 사이렌”

호우·산불 등 대피 재난 시 확대
심야에도 사이렌·음성방송 안내

경기도는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개정(‘26.1.5.)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 풍수해 등) 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589개소의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해 빈틈없는 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산불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된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난 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도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음성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여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보상쿠폰 ‘4장 쪼개기’… 트래블·명품 2만원씩, 차액은 소멸

쿠팡, ‘5만원 이용권’ 지급

개인정보 유출통지 3370만명 대상
로켓배송·이츠에 각 5000원 적용
와우 즉시사용, 일반 최소구매 조건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 등 제외
4월 15일까지 미사용 시 환불 불가

쿠팡이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구매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전체 보상 규모만 1조6850억원에 이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사용 조건과 제한적인 사용처를 두고 반발하는 반응이 나온다. 이 날부터 지급되는 쿠팡 보상안의 구체적인 활용법과 한계를 정리했다.

◆ 5만원, 어떻게 받나

쿠팡이 운영하는 4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로켓배송 등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손진영기자 son@

블 2만원 ▲명품 뷰티 플랫폼 알렉스(R. LUX) 2만원으로 나뉜다.

대상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와우회원, 일반회원, 탈퇴회원 등이며 15일 오전 10시부터 앱·모바일웹·PC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탈퇴 회원은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 재가입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 “일반 회원은 1만9800원 넘겨야”

유의해야 할 점은 멤버십 여부에 따른 사용 조건 차이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이용권을 바로 쓸 수 있지

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 상품 1만9800원, 로켓직구 상품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만 이용권 적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뒤인 4월 15일까지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기간 내 주문을 취소하면 이용권이 복구되지만 기간이 지난 후 취소하면 복구되지 않는다. 또한 ‘1상품 1쿠폰’ 원칙이 적용돼 상품 하나에 이용권 여러 장을 동시에 쓸 수 없으며 이용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쿠팡트래블에서 1만5000원짜리 상품을 2만원 쿠폰으로 결제하면 남은 5000원은 사라지는 식이다.

사용처 제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쿠팡 내에서도 법률상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환급성이 높은 도서, 분유, 주얼리,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 기대했던 쿠팡트래블 내 호텔 뷔페권이나 기프트콘 구매도 불가능하다. 쿠팡이츠 5000원 쿠폰 역시 배달 주문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포장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

도 맞춰야 한다.

◆ **저가 상품 늘린 쿠팡트래블, 알렉스 논란**의 핵심은 보상금의 80%(4만 원)가 할당된 쿠팡트래블과 알렉스의 활용성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여행 상품이나 명품 화장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사실상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쿠팡 측은 추가 지출 없이 구매 가능한 저가 상품군을 대폭 확충하며 진화에 나섰다. 쿠팡트래블에는 2만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키즈카페, 동물원 등 입장권 상품 700여개를 배치했다. 알렉스 또한 2만~3만 원대의 뷰티 상품 400여개를 갖춰 진입 장벽을 낮췄다. 쿠팡 앱 내에서도 5000원 이하 로켓배송·프레시 상품을 14만 개 이상 구비했다.

쿠팡은 일부 인기 상품 품절 사태에 대비해 협력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구매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롯데마트, 外人 관광객 ‘K-쇼핑 코스’로 뒀다

외국인 고객수 23% ↑·매출 30% ↑
시부야 옥외광고·틱톡 캠페인 효과
일본인 관광객 방문물 약 17% 차지

롯데마트가 지난해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에 힘입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고 15일 밝혔다.

엔데믹 이후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롯데마트의 외국인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롯데마트를 찾은 외국인 고객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매출은 30% 늘었다. 특히 공항철도 종착지인 ‘제티플렉스서울역점’은 전체 매출의 약 40%가 외국인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



2025년 10월 개제된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롯데마트 광고.

/롯데마트

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대형 옥외광고를 게재하고, 1020세대를 겨냥한 틱톡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약

17%인 5.8명 중 1명이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마케팅 전인 10월(약 14%) 대비 뚜렷하게 상승한 수치다.

롯데마트는 올해 대만과 중국 등으로 타깃을 넓힌다. 1월 중 대만 관광객을 위해 라인페이와 협업하여 쿠폰 패키지를 증정하고, 다가오는 중국 춘절 연휴에는 알리페이 단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슈퍼 임호석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일본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신동빈, 경영목표 달성 ‘실행력’ 강조

(롯데그룹 회장)

잠실 롯데월드타워서 ‘상반기 VCM’

롯데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6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 신동빈 회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VCM에는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롯데미래전략연구소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어 롯데지주 노준형 대표이사와 롯데지주 고정욱 대표이사가 각각 올해 그룹의 경영전략과 재무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인적자원(HR)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안전으로 다뤄졌다.

신 회장은 이날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룹의 중장기 운영 전략을 전달하며 실행력을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이달 2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마주한 엄중한 경영환경은 그룹 핵심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VCM에 앞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들은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롯데 신격호 창업주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19일 서거 6주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창출하며 그룹을 일궈낸 창업주의 도전 정신과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종욱 기자

GS25 PB라면 ‘오모리’, 日 돈키호테 485개점 입점

김치찌개라면·김치찌볶음면 판매
현지선 초도 물량 조기완판 등 성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일본의 대표적인 할인 잡화점 ‘돈키호테’ 매장에 자체 브랜드(PB) 라면인 ‘오모리’ 시리즈 수출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출 품목 확대는 지난해 일본 돈키호테에 입점한 GS25의 PB 및 차별화 상품들이 현지에서 조기 완판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기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K-라면’ 열풍에 발맞춰 주력 수출 품목으로 라면을 선정했다.

일본 전역의 돈키호테 485개 매장에서 판매될 상품은 ‘오모리 김치찌개라



GS25가 PB라면 오모리 시리즈를 일본 돈키호테로 수출했다. 모델이 일본 돈키호테 매장에서 오모리 시리즈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면’과 ‘오모리 김치찌볶음면’이다. 오모리 시리즈는 2014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하며 제조사 브랜드(NB) 라면을 제치고 용기면 카테고리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GS

25의 대표 스테디셀러다.

이번 일본 진출로 오모리 시리즈의 수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해 총 32개국으로 늘어났다. GS25와 돈키호테는 이번 라면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신규 품목 도입도 논의 중이다.

GS25는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점포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현재 베트남과 몽골 등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 점포를 2027년까지 1000호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김혜중 수출입MD팀 매니저는 “GS25의 브랜드와 상품 수출 역량을 강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테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세븐일레븐, ‘중식대가’ 후덕죽 셰프 협업

21일 중화 김밥·삼각김밥 2종 선보

세븐일레븐은 57년 경력의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와 손잡고 중화요리 간편식 2종을 이달 21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후덕죽 셰프는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에서 43년간 근무하며 국내 요리업계 최초로 임원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재는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호빈’의 총괄셰프를 맡고 있으며, 최근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톱3에 오르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후덕죽 고추잡채 삼각김밥’과 ‘후덕죽 중화 불고기 김밥’ 등 2종이다. ‘후덕죽 고추잡채 삼각김밥’은 굴소스로 양념한 밥에 불맛을 입힌 고기 고추잡채 볶음을 넣어 중식당

요리의 풍미를 그대로 재현했다. ‘후덕죽 중화 불고기 김밥’은 두반장과 굴소스로 볶아낸 돼지고기에 아삭한 식감의 짜사이를 더해 맛의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김밥 구매 시 생수를 증정하고, 삼각김밥 구매 시 탄산음료를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내달에는 카카오페이머니와 롯데카드 결제 시 20%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최강록, 정지선 등 스타 셰프들과 협업한 상품이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븐일레븐 임이선 푸드팀장은 “내공과 실력을 겸비한 후 셰프님의 비법을 편의점 상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신약소식 없는 제약업계, 헬스케어·화장품 등 돌파구 모색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지지부진’
CJ바사, 미생물 분석 서비스 선배
지놈앤컴퍼니, 건기식 등 사업 다각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각기 다른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 및 소비재 사업 등을 캐시카우로 삼으며 신약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전문 기업 CJ바이오사이언스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4일 메디람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 ‘겟 인사이드’를 공급하기로 했다.

메디람한방병원은 항암 치료 후 관리 또는 보조 치료 목적의 암 환자를 주로 진료한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겟 인사이드’도 항암 환자 대상 프로그램 설계에 활용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으로 ‘스마일 겟’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한 키트에 채변 샘플을 동봉해 배송하면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CJ바이오사이언스의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3분기 약 1억 7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커졌다.

같은 기간, 주력 사업인 미생물 생명 정보 플랫폼 및 솔루션의 누적 매출은

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매출도 전년 동기 25억원대에서 24억원대로 줄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후보는 ‘CJRB-101’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폐암과 두경부암에서 CJRB-101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이후 2023년과 2024년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2상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유산균 전문 기업 쉔바이오텍은 대표 제품 ‘듀오락’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쉔바이오텍은 지난해 3분기 실적으로 누적 매출 385억원, 누적 영업이익 4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2% 늘고, 누적 영업이익은 1% 줄었다. 쉔바이오텍은 배우 손석구를 듀오락 신규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면서 캠페인 성공세가 매출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쉔바이오텍은 앞서 지난해 1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대장암 신약 ‘PP-P8’ 임상 1상을 본격화했다

PP-P8은 계열 내 최초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유산균 유전자를 재조합해 항암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쉔바이오텍 측은 “듀오락 사업을 통해 축적한 유산균 기술과 자본으로 대장암, 당뇨와 비만, 질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 벤처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를 활용해 화장

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지놈앤컴퍼니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한 전체 매출(187억원)은 위탁개발생산 매출(98억원) 52%, 화장품 등 컨슈머 매출(88억원) 42% 순으로 구성됐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사업은 화장품 부문인 셈이다.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신약개발 관련해선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면역항암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GEN-001, SB-121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GEN-001’은 락토코커스 락티스 단일 균주를 기반으로 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 장내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해 항암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위암 대상 임상 2상 등을 진행 중이며, 해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 파트너십 기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라고 본다”며 “유산균이든 화장품이든 기존 기술력을 기반으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30년까지 20종 바이오시밀러 구축”

삼성에피스홀딩스 로드맵 공개
2027년부터 신약 1개 이상 추가 계획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 전략 및 연구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경아 사장은 “회사 핵심 기반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현재 전 세계 40개 이상 국가에서 출시돼 있고 지속적인 판매량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30년까지 총 20종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적극 구축할 것이며 특히 현재 블록버스터 의약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약개발 사업 확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홀딩스

품 키트루다, 듀피펜트, 트렘피아, 탈츠, 엔허투, 엔티비오, 오크레부스 등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약 사업 확대와 관련해 최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후보물질

‘SBE303’의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을 받아 오는 2027년부터 매년 본 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을 1개 이상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단기간의 성과나 단순 파이프라인 확대는 지양하고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신설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통해 차세대 치료 기술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공을 발판으로 신약 개발을 본격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형 ‘빅 파마’ 모델로 성장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며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메디큐브 성수, ‘K-뷰티’ 성지 등극

에이피알, 한 달 만에 1.5만명 방문

에이피알은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공개한 플래그십 스토어 ‘메디큐브 성수’가 개점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 1만5000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큐브 성수는 에이피알의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 등을 한 공간에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에이피알의 모든 제품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즉각적인 피부 변화, 사용감 등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실제로 해당 매장의 전체 매출에서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성수를 통해 국



서울 성수에 위치한 ‘메디큐브 성수’ 1층

/에이피알

내 소비자뿐 아니라 방한 외국인 등 글로벌 소비자에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서울 내 관광 명소인 성수 상권의 특징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 응대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외국인 피부 유형과 피부 고민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거나 제품 사용법, 스킨케어법 등을 실질적인 K뷰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청하 기자

한국맥도날드, 점장 400명과 전략 공유

베트남서 2026 RGM 컨벤션 진행

한국맥도날드는 전날 베트남 다낭에서 전국 레스토랑 점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RGM(Restaurant General Manager) 컨벤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 및 올해 주요 전략 공유에 이어 점장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한 커리어 패스 설계 교육, 명사 강연, 우수 점장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리더십과 조직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2025 푸드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Food Safety Hero Award)’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시상식에서는 식품 안

전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실천한 전국 상위 1% 점장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로는 ▲군산조촌DT점 김대철 점장 ▲대구진천DT점 정민지 점장 ▲경북영천DT점 이여람 점장 ▲초읍DT점 홍경희 점장 등 총 4인이 선정됐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추억의 ‘프렌즈’ 협업 통했다

출시 2주 만에 100만 잔 판매

스타벅스코리아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FRIENDS)’와의 협업을 통해 레트로 콘텐츠 소비층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제품·공간·콘텐츠 전반에 드라마의 서사를 녹인 전략이 매출과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스타벅스는 새해를 맞아 ‘친구’를 공통 키워드로 프렌즈 협업 음료와 푸드를 선보였다. 드라마 속 상점을 제품 디자인과 콘셉트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

다. 협업 음료 2종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잔을 기록했으며 프렌즈 명 장면에서 착안한 협업 푸드 2종은 같은 기간 30만 개가 판매됐다.

대표 제품인 ‘얹어진 치즈 케이크’는 드라마 속 유명 장면을 그대로 구현한 비주얼로 SNS 화제를 모았고, 조이의 최애 메뉴에서 영감을 받은 ‘라구 미트볼 샌드위치’는 식사 대용 수요를 흡수했다. 신년 시즌 푸드 구매 고객 중 절반 가까이가 프렌즈 협업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시장 하이브리드 기술력 검증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선정
통산 9번째 수상… 공간성 등 인정
‘21세기 가족용 차량 기준 제시’ 평가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북미 시장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팰리세이드가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통산 9번째 수상이다. 앞서 ▲현대차 제네시스(2009) ▲현대차 아반떼(2012) ▲제네시스 G70(2019) ▲현대차 코나(2019) ▲기아 텔루라이드(2020) ▲현대차 아반떼(2021) ▲기아 EV6(2023) ▲기아 EV9(2024) 등이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는 루시드 그레비티, 닛산 리프 등과 경쟁에서 승리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넉넉한 공간성 등 북미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제공한다.

제프 길버트 NACTOY 심사위원장은 “팰리세이드는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의 재미, 다양한 기술

까지 두루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NACTOY는 1994년 설립 후 매년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승용, 트럭, 유틸리티 부문에서 올해의 차량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 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팰리세이드는 아름다운 디자인, 첨단 기술,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가치 등 현대차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요소를 담은 모델”이라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후반기 구동 방식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주요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럭셔리 브랜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가족 안전체험

지진·화재 발생 대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배워

대한항공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안전체험 행사는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오는 21일과 27일에도 같은 형식으로 두 차례 더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교통 안전 ▲학생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지진과 화재 발생 때 대치요령을 직접 익히고 심폐소생술 등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법을 배웠다. 버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행사 참가자들이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대한항공

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비상 탈출하는 방법도 실습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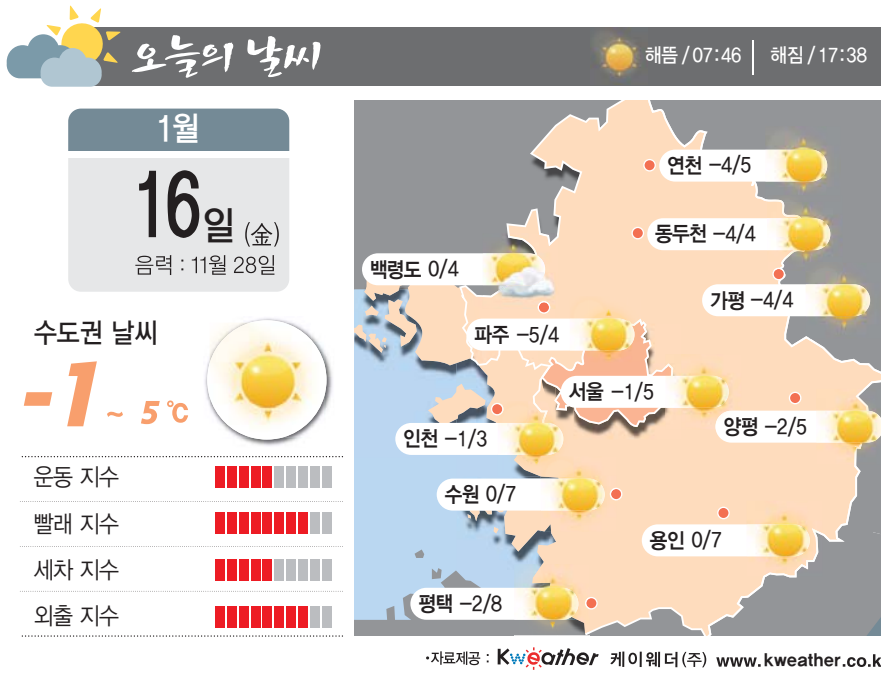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인사

- ◆ **우리카드** ◇신규 임원 IT본부 상무 김광혁
- ◆ **iM증권**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부음

▲ 김정숙(운암 김성숙 선생 조카)씨 별세, 이제우·승제·경애·윤정 모친상 = 14일 오후 7시31분,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낮 12시,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파주선영. 02-2030-4444



한유원,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

한유원은 15일 오전 서울 목동 사옥에서 창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유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벤처, 소상공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다. 설립 당시 ‘중소기업유통센터’였던 기관명은 기관의 역할과 사업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유원은 대국민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와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태식 대표(사진)는 기념식 기념사에서 “창립 30주년을 맞는 2026년은 이제 다가올 미래 3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를 위해 서른 살 한유원은 청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면서 “우리 고객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마케팅, 판로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칭찬받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KCC, 주거환경 개선 등에 성금 3억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분할 기탁

KCC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억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15일 KCC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전국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분할 기탁했다. 기부해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탁한 성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보수, 긴급 지원 등 지역 이웃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KCC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기부금 기탁과 함께 KCC의 고성능 창호, 친환경 페인트 등 건축자재를 활용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동서발전, ‘7000원 기부 릴레이’ 동참

울산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힘보태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나눔 확산을 위한 ‘7000원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힘을 보탰다. 동서발전은 지난 14일 오후 울산 본사 사옥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추진하는 ‘7000원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인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지역 참여형 나눔 활동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GS파워, 공정안전관리 고용부 장관상

GS파워는 14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윤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과 김성민 GS파워 김성민 부천발전부문장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그룹



한전KPS, 광주공고 기술실습 현장견학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실습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전기 및 SI반도체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교생들이 참여했다. /한전KPS



한솔홈데코, 드라마 세트 폐목재 재활용

한솔홈데코는 스튜디오드래곤과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드래곤 본사에서 ‘드라마 세트 폐목재 재활용화 및 친환경 순환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솔홈데코 양병갑 지원혁신부문장(오른쪽)이 스튜디오드래곤 이혜미 사업지원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홈데코



케이뱅크, UAE 디지털자산 송금 협약

케이뱅크는 아랍에미리트(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왕하오(Wang Hao) 체인저 부대표, 문범영 비피엠지 개발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우리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우리은행은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오른쪽 세번째부터),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과 부끄러움



송지승 교수

경제 읽기

KB금융그룹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1546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필자도 도베르만 핀서 1마리와 토이 푸들 1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 대형견 도베르만을 키우게 된 원인이 '미니핀'이라고 판매한 분양업자의 속임수에 의해 시작됐다. 분양 할 달 만에 소형견이 아니라 대형견임을 알게 되면서 분양업자한테 되돌리려 하던 참에, 2016년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 결과는 옳았다. 두 견공이 우리 집에 끊임없는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가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필자가 난데없이 병오년 새해 벽두에 반려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반려견에 대한 편견과 우리 인간의 부끄러

운 행동을 지적하고, 동물복지의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가 정화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편견을 보자. 첫째는 반려견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다. 감정을 지닌 반려견은 정서적으로 인간과 교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학대, 훈육 명목의 체벌, 병든 반려견의 유기 등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사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는 과거 사회에서 만연되었던 반려견에 대해 하찮고, 때론 필요치 않은 존재로의 인식이다. 우리말의 상소리로 '개소리, 개자식, 개새끼' 등과 같이 '개'란 접두사가 단어에 붙는 말들이 적지 않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접두사 '개'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부끄러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반려견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가시권에 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채우려는 욕심이 있다. 반면 반려견은 가시권 내에서조차 자신의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욕심을 가지며 나머지는 공생으로 받아들인다.

둘째는 반려견의 충성심과 복종이다. 주

인이 반려견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반려견이 주인을 배반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탐지견, 안내견, 인명구조견 등과 같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견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려견은 자폐아, 파동립을 받는 아동, 독거노인 등을 위한 심리치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반려견의 주인에 대한 무한 신뢰와 이해심이다. 보통 반려견은 오토바이나 진공청소기와 같은 광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물치료사들은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견주가 직접 이를 타보거나 작동하는 걸 권한다. 이는 주인이 반려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님을 느끼게 하여, 반려견이 주인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반려견은 우리 인간과 사회적 감정을 교류하는 매우 유용한 동반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최근 20대 젊은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서 '개'란 접두사가 붙어 '개좋다, 개신나다, 개이득' 등의 속어가 출현하고 있음은 눈여겨볼 일이다. 이런 사회의 언어변화 만큼, 반려견 복지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중국 AI 논란보다 더 불편한 국산 AI의 공백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최근 IT 업계에서는 중국산 인공지능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내 기업과 개발 현장에서 중국계 생성형 AI 모델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술 종속과 보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대형언어모델은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코드 생성과 수학 추론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실무 활용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AI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바이두는 생성형 AI '어니봇'을 검색·클라우드·자율주행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자사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동남아와 중동, 일부 유럽 시장에서도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을 바라보는 국내 논쟁이 '중국 AI를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작 현장에서 더 절박한 질문은 따로 있다. 중국 AI를 쓰지 않으면, 당장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산 AI가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은 "성능·가격·안정성 면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국산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국산 AI가 없어서가 아니라, 범용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 허들이 높다는 평가다.

중국 AI의 리스크는 기술 자체보다 제

도와 구조에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정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우려 요소다. 특히 공공 행정, 금융, 의료, 내부 업무 문서 처리와 같은 영역에서는 민감도가 높다. 다만 이 역시 '중국 AI는 무조건 배제'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로, 어떤 통제하에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중국 AI 논란이 반복될수록 드러나는 것은 국산 AI 생태계의 공백이다. 기술 주권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하다면 논쟁은 감정 소모로 끝난다. 필요한 것은 사용 금지 선언이 아니라, 쓰고 싶어지는 국산 AI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중국 AI를 둘러싼 소란이 불편한 이유는, 그 끝에 결국 '국산 AI의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눈앞의 이익도 놓친다. 48년생 상사의 협력을 논하지 마라. 60년생 늘 준비하자. 72년생 결혼의 인연이 되니 재물 이상으로 값지다. 84년생 엇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니 문서 잘 살펴라.



37년생 마음은 바쁘지만 따라가지 못해 답답. 49년생 송사에 걸릴라 다툼에 참견마다. 61년생 토끼띠와 일하러다 중도 포기된다. 73년생 동업으로 인해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이 생기는 하루. 85년생 날이 밝아 오니 고민이 사라진다.



38년생 이성 간에 생각이 다르니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50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서 심신이 괴롭다. 62년생 아침부터 바빠진다. 74년생 연인에게 지나친 간섭은 집착기로 보일 수. 86년생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니 양보하자.



39년생 작은 이익이 생겨서 활기차다. 51년생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63년생 자금계획이 생기니 의욕도 충전. 75년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깨어져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87년생 참석해야 할 경조사를 잘 챙겨라.



40년생 음의 기운이 강하니 새 아성에 눈을 뜬다. 52년생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라. 64년생 분노 조절 상대를 직장에서 찾지 않도록. 76년생 기회가 오는 운세이니 스케줄관리부터. 88년생 동업자와 문제가 있으니 서로 양보하게 된다.



41년생 작은 이익 때문에 친구와 분쟁이 생기니 신중히 생각하라. 53년생 하루가 조용하다. 65년생 컨디션 조절이 필요. 77년생 계약 문제는 오후에 물꼬가 트인다. 89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직 포기하지 말라 내일이 있다.



42년생 진행하는 일에 결과가 따른다. 54년생 영업에서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66년생 연구발표로 명성을 얻게 되어 행운이다. 78년생 산행에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90년생 비운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



43년생 여행을 바라거나 일을 미루면 손해. 55년생 활력이 아니 조직에도 이익이 생긴다. 67년생 지속해서 나가는 자세로 영업에 몰두하자. 79년생 부동산재개발도 해결될 것이나 기다려라. 91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로우니 경사롭다.



44년생 노력하여 일이 풀리니 근심이 사라진다. 56년생 혼자만의 명상을 해보라. 68년생 남의 눈치보다는 노력하여 능력을 발휘하자. 80년생 경조사는 회의로써의 논하여 일의 성취가 된다. 92년생 저녁에 일찍 귀가하여 지출을 줄이자.



45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먼저 베풀어라. 57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이 찾아온다. 69년생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81년생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 협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93년생 공파 좋아하다 망신 수가 발생.



46년생 가정사 이별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다. 58년생 부부간에 모처럼 외식으로 즐겁다. 70년생 시간약속을 잘 지켜라. 82년생 애초에 포용력을 발휘하면 서로 간에 도움이다. 94년생 회사 내부의 낭비 요소를 찾아 밀 빠진 독을 막도록.



47년생 이상한 조건 없는 사귄다 진정한 교제는 절대 아니다. 59년생 결정이 늦어져 시간만 간다. 71년생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할 듯. 83년생 가능한 안색하는 자리는 피하자. 95년생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하느니 그냥 주는 것을 선택.

김상회의四季

오행 상식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의 신도들은 일, 이년 정도 법회에 참석해주는 신참에 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인연을 맺어, 10년지기 신도분들 등등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분들이다. 한국의 불자들은 전국의 천년 고찰뿐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참배하는 사찰이나 암자라 할지라도 모두 자기 원찰처럼 친근하게 불법 인연들을 맺고 있기에 필자는 초하루나 보름 법회나 기도를 하지 않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법회 일로 하여 신도분들의 시간적 중복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예불과 법문이 끝나면 점심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도분들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즉문즉설처럼 나눈다. 금번 12월 법회 때 일이다. 한 신도분이 질문을 하려 일어서는데 필자가 그 신도분의 안색을 보는 순간 건강에 문제가 느껴졌다.

안색이 빛이 흐려지고 거뭇해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건강수에 관해 질문한다. 먹어도 기운이 없고 조바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주명조에 수(水) 오행이 없어 평상시에도 물을 잘 마시줘야 한다. 이런 경우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하여 오히려 수분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주명조에 부족한 수기운을 채워주는 운기가 와야 하는데 大運도 수기운이 아닌 데다가 12월은 乙巳年이니 세운에서도 도와주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뜻하는 일도 지지부진하거나 건강도 피곤함을 느낀다. 이 경우는 수기운을 조달해줘야 하는데 차나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내장 기관과 피부 속의 물까지 뺏아 가니 세포 내 수분부족으로 신진대사도 안 좋아지고 안색은 운기가 부족해져 탁해진다. 당장 커피와 차를 끊고 물만 잘 마시줘도 건강에 도움이 됨을 얘기해 주었다. 생활 방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도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3				4	9	7	
								3
				2			4	5
			6					
					5			
						9		
2		6				1		
7								
	5	3	8				4	7

					8			
				4			2	8
2		6						
3	2	7						
9								6
							7	1
							5	1
	4	5		8				
					4			

2	9	7	6	8	9	9	1	
1	2	8	9	9	9	6	2	
6	9	9	1	7	2	9	8	2
7	1	2	6	2	8	8	9	9
9	6	2	8	9	7	1	1	8
8	8	9	2	1	9	6	2	7
9	9	7	8	8	2	1	2	6
8	8	1	9	2	6	2	7	9
2	2	6	7	9	1	9	8	8

2	2	8	7	9	6	8	9	1
8	6	9	1	8	2	9	7	2
1	7	9	8	9	2	2	6	8
9	1	2	8	2	8	7	9	9
6	2	8	9	2	1	8	1	6
8	9	7	9	6	1	2	2	8
7	8	6	2	1	9	9	8	2
2	8	2	6	7	9	1	8	9
9	9	1	2	8	8	6	2	7

소비농 블랑의 여왕... 줄스 테일러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8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맛이다 비슷비슷할 것이란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풋고추나 자른 풀향을 넘어 열대 과일과 감귤 향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소비농 블랑이 이미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뉴질랜드 말보로 와인러 '줄스 테일러'의 와인메이커 줄스 테일러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이나 빈야드마다 스타일이 나 뉘앙스가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

줄스는 "구세계가 양조법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많다면 뉴질랜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많다"며 "특히 말보로는 와인 양조 역사가 길지 않아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양조하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줄스는 와인 업계에서 '말보로의 레전드', '퀸 오브 소비농 블랑'으로 불리는



줄스 테일러가 자신의 와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와인은 왼쪽부터 '더 베타 하프 말보로 소비농 블랑',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 '줄스 테일러 말보로 샤도네이', '줄스 테일러 말보로 피노 누아'.

/안상미 기자

이다. 말보로에 소비농 블랑 나무가 처음 식재되던 때에 태어났다는 필연적인 운명은 차치하더라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로 소비농 블랑 전문가다. 특히 말보로 지역 스페셜리스트이자 여성 와인메이커로서도 선구자다. 지난 2021년에는 말보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올해의 와인메이커'로 선정되기도 했다.

줄스 스타일의 키워드는 과실이다. 이를 위해 포도를 기계로 수확한다.

그는 "30여년 전 말보로 소비농 블랑이라고 하면 초록 풀향이 특징이었지만 요즘은 열대과실의 풍미를 중시 여기고, 할라피노 페퍼 같은 복합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보통 손수확이 좋다고 보지만 기계로 수확할 때 나는 상처나 나오는 즙 등이 과실 풍미를 더 좋게한

다"고 전했다.

'더 베타 하프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아주 연한 벚꽃 색깔에 잘 익은 노란 과실미와 신선함이 바로 느껴진다. 자른 풀향보다는 과실미가 두드러지고, 초록 뉘앙스가 있다고 해도 풀보다는 허브에 가까웠다.

줄스는 "말보로의 소비농 블랑이 어떻게 대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와인"이라며 "과실의 생생한 풍미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너무 높지 않은 산도와 잔당을 느끼게 양조해 직관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베타 하프는 줄스의 남편인 조지가 만든 와인이다. 조지 역시 와인메이커였지만 줄스를 위해 와이너리의 다른 업무를 담당해 왔다. '더 베타 하프(The Better Half)'는 조지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 '줄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와인 브랜드의 반쪽에 만족한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잘 익은 백도와 자몽, 패션푸르트 등이 단숨에 피어오르며 향만으로도 좀 더 복잡적이고 구조감도 있겠구나 싶은 와인이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더 베타 하프보다 1년 정도 더 병숙성을 진행한다. 그래서 더 베타 하프는 2025년 빈티지, 줄스 테일러는 2024년 빈티

지였다.

같은 품종, 같은 양조 방식으로 만든 와인이지만 더 베타 하프가 소비농 블랑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춘 '육각형' 소비농 블랑이라면 줄스 테일러는 말보로 특유의 명확한 캐릭터를 중심점으로 모여드는 '둥근 원' 같은 소비농 블랑이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피노 누아'는 2007년부터 만든 와인이다. 모두 알다시피 피노 누아는 쉽지 않은 품종이다. 재배와 양조 모두 까다롭다. 줄스 역시 다양한 클론으로 재배해 구조감을 살리고, 저온 침용으로 피노 누아만의 매력을 살리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 생산량도 많지 않지만 테루아와 기후에 따라 그때그때 와인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묘미는 와인메이커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즐거움이다. 2023년 빈티지는 균형감을 중시한 만큼 생동감 있는 과실과 매끈한 질감의 타닌이 잘 어우러진다.

줄스는 와인 양조 과정에서 자연 효모를 쓴다.

그는 "구매 효모는 정제되고 정해진 향과 맛을 내지만 자연 효모는 통제가 쉽지 않아 일정 부분 리스크는 있지만 다른 구조감과 질감, 다른 풍미를 줘서 와인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영화관서 만나는 오페라... 메가박스 '유럽 3대 시리즈' 상영

전국 9개 지점서 3월까지 매달 한편씩

메가박스가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무대를 극장 스크린으로 옮긴다. 메가박스는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시리즈' 상영을 확정하고 클래식 콘텐츠 브랜드 '클래식 소사이어티'의 본격적인 출범을 15일 알렸다.

국내 영화 산업이 구조적 침체에 직면하며 관객 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메가박스는 극장 사업의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연 실황과 콘서트 라이브 뷰잉, VR 콘텐츠, 대관 중심 운영 등 비(非)영화 콘텐츠 비중을 확대하며 집단지·현장적 경험을 제공하는 극장만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오페라 상영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시리즈는 유럽 3대 오페라 하우스로 꼽히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안 데어 빈 극장, 잘츠부르크 대극원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실황을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한 편씩 '마술피리', '노르마',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선보이며, 각 작품은 3주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 9개 메가박스 지점에서 상영된다.

첫 작품은 1월 15일 개봉하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마술피리'다. 1869년 개관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로 평가받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선보인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를 현대적 무대 언어로 재해석했



메가박스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시리즈

/메가박스

다. '유령의 집', '석탄 창고', '젠틀맨 클럽' 등 상징적인 공간을 넘나드는 연출로 선과 악의 대비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상영 기간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2월에는 안 데어 빈 극장의 '노르마'가 관객을 만난다. 1801년 개관한 안 데어 빈 극장은 수많은 명작 오페라가 초연된 유서 깊은 공연장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여사제 노르마의 사랑과 복수, 종교와 이성 사이의 갈등을 현대적 이념 충돌로 재해석했다. 특히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처음으로 노르마 역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상영은 2월 5일부터 21일까지다.

시리즈의 마지막은 잘츠부르크 대극원 극장의 '마리아 스투아르다'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핵심 무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거대한 회전 무대와 무빙 코러스 연출을 통해 영상·조명·무대 디자인이 결합된 압도적인 시각 효과를 구현했다. 스코틀랜드 여왕 마리아 스투아르다와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정치적 대립과 감정의 충돌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화를 말로 바꿀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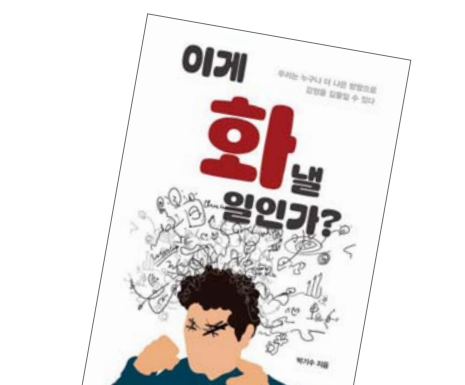
화는 순식간에 사람을 다른 존재로 바꾼다. 분명 사소한 계기였는데, 돌아보면 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화를 반복한다.

박기수 작가의 도서 '이게 화낼 일인가?'는 화를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왜 통제되지 않으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해부한다.

저자는 화를 '진화가 만든 생존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몸을 전투 상태로 전환시키는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맹수나 외적을 상대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위협은 줄었지만 자국은 늘었고, 화는 종종 과잉 반응으로 튀어나온다.

이 책은 화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생리학적으로는 뇌와 호르몬의 작용을, 심리적으로는 사고 패턴과 인지 왜곡을,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환경과 집단 분노를 짚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가 증폭되는 '에코 챔버' 현상에 대한 분석은 지금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해법 역시 단순한 '참아라'식 처방이 아니다. 저자는 화를 다스리는 핵심으로 '감정의 언어화'를 제시한다. 화라는 덩어리 안에는 억울함, 수치심, 무력감 같은 더 취약한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감정을 분리해 인식하고 말로 번역할



이게 화낼 일인가?

박기수 지음/예미

수 있을 때 비로소 화는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된다. '멈추기-바라보기-말하기'의 3단계 연습, 심호흡과 명상, 인지행동치료와 마음챙김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나와있다.

기자, 공직자, 교수를 거치며 30년간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저자의 이력은 책 전반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화를 이상화하지도, 도덕적으로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화를 다루는 능력이 개인의 성숙도를 가르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짚는다.

감정이 곧바로 행동이 되는 사회에서, 화를 말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와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296쪽, 1만9000원.

/신원선 기자



▲이란, 영공 한때 폐쇄... 국제선 운항 '뚝'

/사진 뉴시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난민 전형' 신설... 5명 장학생 선발

▲독일 국방부 "그린란드 다국적 순찰군에 독일군 대표 13명 파견"발표

▲美 미네소타주서 또다시 총격 사건 발생... 30대 여성 사망 후 일주일만

▲루브르, 非유럽인 입장료 인상... 3만7000원→5만4000원

▲인도 델리에 '한국교육원' 개원...한류 타고 한국어 보급·유학생 유치



쿠팡
트래블·명품 등
보상쿠폰 ‘쫄개기’
L1



Life

제약업계
헬스·화장품 등
돌파구 모색
L2



AX 주도권 잡고, 생산적금융 성과 키우고… 혁신 불씨 지핀다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기술이 금융의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인 만큼 신한만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웹(Web)3, 주체적인(Agentic) 인공지능(AI)의 확장이 현실화되며 예금, 대출, 송금 등에서 기존 회사들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미래전략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적금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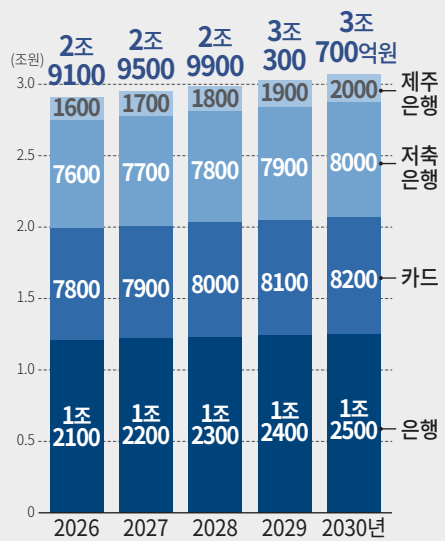
진 회장은 최근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혁신의 불씨가 되어 신한 미래 경쟁력을 높여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한금융 향후 5년간
포용금융 계획 현황

단위: 억원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사잇돌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사업자금대출(확대), 서민주택임대보증금대출(축소) 등

/신한금융그룹

◆ AX·DX로 미래 금융 선점

신한금융은 ‘그레이트 챌린지(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을 슬로건으로 AX·DX를 가속화한다.

AX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프로세스, 의사결정,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DX)으로 업무를 디지털화했다면, 앞으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미래금융 향한 ‘그레이트 챌린지’
AI 데이터 기반 새로운 가치 창출
AX·DX 생존과제… 경쟁력 키워야

시니어 맞춤 상품·자산관리 강화
보험·자산운용 시너지로 수익성↑

진 회장은 “AX, DX는 단순히 수익 창출이나 업무 효율의 수단이 아닌 생존과제”라며 “일하는 방식과 고객 접점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만큼 AX를 통해 신한만의 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위한 그룹 핵심 인재인 ‘AX 혁신리더’ 발대식을 가졌다. AX의 성과가 현업 주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 자회사의 현업 실무자 중심으로 ‘AX 혁신리더’ 100명을 선발했다.

은행과 증권 자산관리 총괄(One WM) 체계를 강화하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도 만든다. 은행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초고령사회에 맞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품과 자산관리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진 회장은 “보험과 자산운용의 시너지를 통해 자산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글로벌에서도 확고한 조력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그룹 조직개편과 생산적 금융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그룹차원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려있던 금융자금을 혁신기업, 첨단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지원한다는 의미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추진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해당 전략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새롭게 발족시켰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

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추진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과제에 반영해 그룹 전반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하고,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전반의 선구안과 실행 역량을 함께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플랫폼 ‘땡겨요’와 포용금융

신한금융은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110조원 중 15조원을 포용금융에 지원한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제주은행을 포함해 올해 2조9100억원

을 지원하고 ▲2027년 2조9500억원 ▲2028년 2조9900억원 ▲2029년 3조300억원 ▲2030년 3조7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 배달사업인 ‘땡겨요’를 활용한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한다. 땡겨요는 배민, 쿠팡이츠 등 플랫폼 독과점 시장에서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데이터를 통해 대출을 공급하는 플랫폼이다. 민관협력형 대출상품으로 최대 1억원의 운전자금을 제공(최대 4%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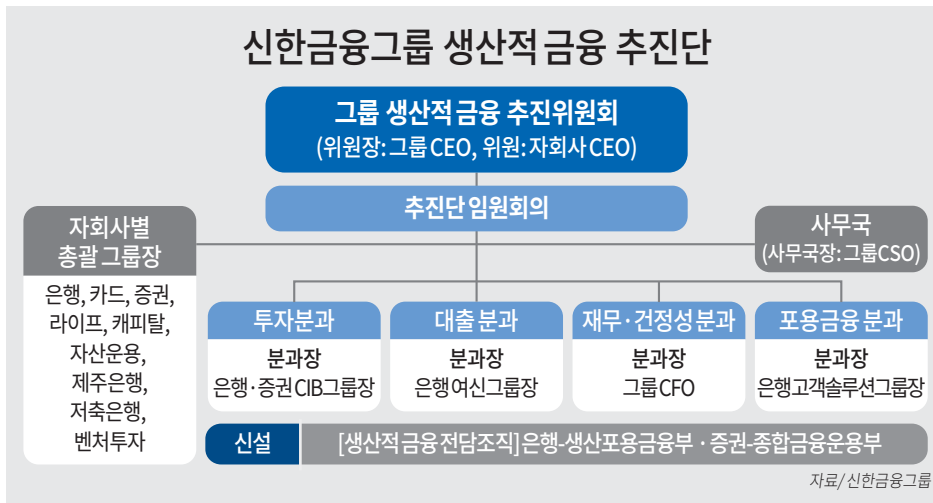
그룹 조직개편… 실물경제 성장 지원
생산·포용 금융에 5년간 110조 투입
성과창출 체계 강화해 역량 고도화

이차보전대출 출시·고객가치제고 등
지속가능한 생산·포용적금융 실천

고객의 신용을 상향(Bring-Up) 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직접 도와주며(Help-Up), 절감된 이자를 대출원금 상환(선순환)하는 고객가치 제고(Value-U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신한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중저신용 고객은 신한은행으로 대환해 금리인하와 고객신용도를 상향한다. 신한은행, 제주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중 두자리수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대출은 1년간 일괄 한자리수로 인하한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현석, 벨기에에 헛트로 임대…출전 기회 찾아
친정팀 복귀
▲사령탑 바꾼 레알 마드리드…국왕컵 16강서 2
부 팀에 패배
/사진 뉴시스

▲안병훈, LIV 골프로 이적…‘코리안 GC’ 캡틴
맡는다
▲日 메이저리거 오타니, 스포츠스타 부수입 세계
1위…약 1500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5’ 최종 수
상자에 김영은 작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역새, 봄까지 안 자른다…
첫 시도